

미래세대의 목소리

* 민주당에 바란다 *

한가람(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숨가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고, 상당수는 정치를 혐오한다. 즐거운 대화 가운데 정치이야기가 등장하면 마치 길에서 도를 아나는 질문을 받은 듯 어색한 표정이 되거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난 듯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 일쑤다. 그들에게 정치는 희망 없는 이야기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행태를 보며 실망할대로 실망해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장차 나라의 핵심이 될 젊은이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니, 오로지 걱정뿐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발전을 열렬히 희망한다. 실망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되돌릴 만큼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우리가 피하지 않을만한 정치를 원한다. 그러려면 정당이 할 일이 많다. 솔직히 말하면 난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발전에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고로, 나는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통 야당'으로 규정한다. 기득권과 맞서 온 역사를 자랑스러워한다. 아마 '진보적인' 당의 모습에 젊은이들이 따르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착각이다.

민주당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민주화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의 자부심은 존중한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민주화 즈음이

나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교과서에서 배우긴 했다. 그러나 직접 보진 못했다.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남북정상회담뿐이다. 물론 역사적 의미는 대단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는 없었다.

우리가 정치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비전'이다. 비전은 단순한 계획상의 목표가 아니다. 모두가 깊게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목적. 이것이 비전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비전을 지지한다.故 김대중 전 대통령,故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비전을 제시한 분들이다. 성공 여부를 떠나 그들은 우리의 꿈을 구체화하고 가능성을 보여줬다. 과거의 업적으로 교훈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것들이 변한 세상에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할 순 없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오로지 비전뿐이다.

그렇다고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말문이 막힐 것이다. 사실 유권자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뭘가 원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뭘지 모른다는 것이다. 여태껏 정치는 대중 어림짐작하거나, 전혀 생똥맞은 공약으로 경쟁했다. 아니, 사실 경쟁도 아니었다. 누굴 뽑든, 누가 뽑히든 본질은 똑같았다.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원하는 것을 주입한다. 정치라는 시험에서 정당은 공약과 정책을 답으로 제출하고 유권자들은 투표로 채점한다. 즉 정당은 표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데, 자신의 답이 맞다고 우기며 정답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치를 혐오하지는 않는다. 영국 의회에 가면 검선(Sword Line)이란 것이 있다. 어떤 의원도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조차, 초기에는 의원들이

서로 칼부림하는 것을 막아야했다는 뜻이다. 하물며 근대정치가 시작 된 지 60년도 안된 우리나라가 싸움질을 하는 건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다만 그 싸움이 밥그릇 싸움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비전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면 난 박수를 치며 응원하겠다.

어차피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은 아니다. 다만 다른 생각들을 조율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무시된 채 난장판이 되어버린 국회와, 여기에 등 돌려 버린 젊은이들을 생각해보라. 정치 발전 욕구가 뿔속 깊이 사무친다. 민주당은 어찌 외면하고 있는가. 어찌 발등에 떨어진 불뚱에 급급한가. 민주당의 상징이 왜 소나무인지 생각하라. 당신들의 이상처럼 혁신하고 진보하라. 민주당이여, 바라건대 우리의 비전을 찾아 함께 가자 부탁해 달라. 

* 서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민주당 *

소재현(20대 회사원)

설상가상..재미도 감동도 없다.

전문지 기자로서 발을 들인지 어느덧 2년차가 되어가고 있다. 막연하게 언론에 대한 꿈만 꺾을 뿐 일간지, 전문지, 웹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발을 들여놓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다보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슬슬 늘어나고 활동폭도 넓어졌지만, 늘어나지 않는 것은 통장 속 잔고라,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다는 건 꿈같은 일이다 보니, ‘돈만 많으면 장땡’이라는 공식 때문에 몇 년을 꿈꿔왔던 직업관이나 사회관마저 위태위태하고 있는 내 자신도 참 한심한 수준이다.

직장이 신문사이면서 제약업계 전문지이다 보니 대부분 제약광고 수입으로 수익을 내지만 이번에 새로이 들어간 종편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어 점점 더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덕분에 연봉은 늘어날리 만무하다. 설상가상 제약계에 불어 닥친 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까지 터지면서 각종 제약사들이 공정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 아직까지 단칼에 베어져 쓰러진 회사는 없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안전한 방법으로 종편에 투자하는 회사까지 늘어나고 있다. 슬픈 현실이지만 있는 놈 더 먹이는 식의 부자연론 살찌우기 체제로의 전환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같은 중소 신문사들이 쓰러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작은 언론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중소 언론의 오너는 물론 일선 직원들까지 먹고살기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전세대를 신문으로만 접하다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가관이다. 지난해 말 동생과 함께 서울에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 월급이 충분치 않다보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달려 그 돈 가지고 전세는 힘들다는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줄린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모으고 모았더니 그 돈으로 월세집도 찾기 힘들다는 사형선고에 망연자실해졌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전세값이 뛰다고 하니 쾌재를 부르겠지만, 나 같은 무주택자는 집 없는 설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여기저기 둘러보다보니 심한 곳은 전세값이 이번 주가 다르고 다음 주가 또 다른 집도 있었다. 시중 은행의 금리가 낮다보니 굳이 전세를

농지 않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증가로 2007년 말 건설 물량을 건설 회사들이 무섭게 쏟아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중대형 고급아파트 짓기에 몰입하기 시작하자 서민들의 경우 주택 구입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도 전세대란에 한 몫 거들면서 서울권 전세는 여전히 상승곡선만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가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동생의 경우 군 입대 전에 살던 집이 제대 후에는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고,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물량이 달려 외국인부터 입주시키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월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동생의 친구 중에는 ‘계약동거’를 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

일반 도시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0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전세대란 탈출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마저도 근시안적이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서민들은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서처럼 상승하고 있다. 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일반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자세로 인해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당에 바란다. 욕심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소통’에 귀 기울여 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게 만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서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인해 전세대란에 눈물짓는 서민들이 얇은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화하는 진보, 민주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해 본다. 

* 민주당의 나아갈 길 *

백운정(30대 주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아~.”

초등학생이 되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는 아침에 깨울 땐 연방 하품을 하지만 학교로 향할 땐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이다. 햇병아리 티를 아직 벗지 못했지만 종종걸음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대견한 마음이 든다. 초등학교를 보낸 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치원까지는 돈을 내면 종일반이라는 제도가 있어 아이를 6시까지 는 봐주고 버스로 집근처까지 데려다주지만, 초등학교는 12~2시에 끝나 버리고 엄마가 집에 없는 아이는 혼자 걸어와야 하며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다.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아이가 혼자 집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다. 우리 아이는 다행히 할머니가 동네에서 자그만 식당을 하고 계셔서 학교 후 식당으로 간다. 그러나 아저씨들의 담배연기로 인해 공기도 좋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대는 식당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녹초가 된 아들을 볼 때면 부아가 치민다. 주중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기 때문에 육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은 은근 미안해하는 눈치이지만 아이는 아이대로, 아이 걱정 에 일은 일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결국 부부싸움을 하고 만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형제를 낳아주는 것이다’ 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엄청난 육아비와 하나도 맡기기가 힘든데 돌까지 맡긴다는 것은 거의 엄두가 나지 않기에 외동으로 키우기로 결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전쟁중’이다.

우리는 맛별이지만 학교 방과 후에 아이를 보내는 곳은 다 돈으로 해결 해야 하기에 막대한 교육비로 인해 미래 노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교육 무용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고 학원으로 아이를 돌

리고 싶지 않지만 맞벌이인 우리로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노후 비용이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모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젊다’는 핑계를 대면서 노후 생활에 대해 ‘어떻게 되겠지’라고 몽개고 넘어가지만 언제까지일지 걱정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까지 읊조린 내 모습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30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 맡길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엄청난 육아·교육비로 가정 경제는 항상 마이너스. (나의 경우는 일에 필요한 공부를 위해 현재 대학원을 다니는데 등록금이 어찌나 비싼지 빚을 내서 다닌다.) 노후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하루하루 버티어 내는 그런 생활.

나에게 민주당은 모순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민주정부를 책임졌던 경험을 가진 집권세력으로서 최근 보편적 복지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복지 개념의 기준을 높이고 있는 민주당이 우리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집권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보여준 무기력함, 복지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은 기대의 밑동을 흔들고 있다. 얼마 전 민주당 공청회에 나온 20대 대학생들이 민주당더러 ‘힙합바지를 입은 50대’, ‘승진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하는 40대’라고 했다던가? 이들이 민주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 역시 비슷했던 모양이다. 민주당에 덧씌워진 이런 이미지는 곧 현재의 민주당이 진보와 퇴행의 기로에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데 공허한 공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에 답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개별적 ‘특수’ 들을 ‘보편’으로 종합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 그리고 정당의 역할이라고 나는 배웠다. 개개인의 서민들이 귀담아 그들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모순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나와 내 아이,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비록 오늘은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을 치르고 있

지만 언젠가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가,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 공정한 사회를 갖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답이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험결과는 나올 것이다. 